



그리스 위기, 은행 유동성 문제로 전이될 전망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S&P는 그리스의 채무조정 가능성이 커져 디폴트(채무불이행)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이를 반영하여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'B'에서 3단계 아래인 'CCC'로 강등한다고 밝힘.

- 이번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패키지의 하나로 EU, IMF 등이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함.
- 독일정부는 그리스 국채 만기연장에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, 유럽중앙은행(ECB)은 비자발적 채무조정이 채권시장에서 디폴트로 받아들여져 '신용사건(event)'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함.
- 현재 그리스의 채무조정은 민간투자자들이 그리스 국채를 자발적으로 차환(롤오버)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음.
- 다만 S&P는 민간투자자들의 자발적인 국채 만기연장 역시 채무자가 원래 조건에 의한 의무보다 비용을 덜 치르기 때문에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음.

■ 그러나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디폴트 상태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임.

- UBS컨설팅은 그리스 국채가치가 하락한 후 Basel III에서 요구하는 8%의 기본 핵심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함.
 - 현재 그리스 5대 은행의 기본 핵심자본비율은 약 9%이지만, 그리스 국채 할인율(hair cut)이 40%에 도달할 경우 그리스 은행들은 84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.
 - 다만 그리스 국채 할인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큰 위협은 되지 못함.
- 추가 구제금융 이후에도 그리스 은행들이 예금인출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유동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- 그리스 은행들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2009년까지 120%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.
- 2010년부터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예금인출이 급증하고 환매조건부시장, 은행 간 자금대부시장, 채권시장이 모두 기능을 하지 못하여 그리스 은행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1,350억 유로의 자금조달 갭이 발생함.

〈표 1〉 2010년 그리스 민영 은행 예금 유출입 현황

구분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2010년
가계	-54억 유로	-126억 유로	-24억 유로	-30억 유로	- 234억 유로
기업	-52억 유로	16억 유로	-15억 유로	-7억 유로	- 58억 유로
외국인	0	-74억 유로	-29억 유로	2억 유로	- 102억 유로
합계	-107억 유로	-184억 유로	-68억 유로	-35억 유로	-393억 유로
증가율	-4.0%	-10.7%	-13.2%	-14.5%	-14.5%

주 : 증가율은 연율, 누적
 자료 : Bank of Greece

■ 그리스 은행의 유동성 부족 문제는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구제금융 이후에도 그리스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- 그리스 은행들은 2011년 들어 비핵심 자산매각으로 400억 유로를 확보하고, 은행 간 합병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유동성 확보에 노력함.
- 그러나 그리스 은행들이 현재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없고 자금조달 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 예금인출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신용경색에 처할 수 있음.
- ECB는 제1차 구제금융 지원 시 그리스 은행에게 무제한의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으나, 현실적으로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 이후 담보물로서 그리스 국채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ECB에 대한 그리스의 6월 현재 부채 규모는 870억 유로 수준임.

(Wall Street Journal, National Bank of Greece, 6/14)